

## 蔚山 地域經濟發展을 위한 觀光産業의 活性化 方案

장병익

사회과학부 경제학과

### <요 약>

오늘날 관광산업은 1차산업에서 4차산업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독자적 산업군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 관광산업을 단순히 3차산업인 서비스업의 일부분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독자적 산업분야로 인식해야 한다. 관광산업은 지역경제발전 전략 측면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사회, 자연 및 문화적 재조건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외화획득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발전을 꾀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관광개발은 자연의 파괴가 아닌 보존을 의미한다는 기본논리에 입각하여 울산의 관광개발의 현황과 문제 및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울산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영역별로 개발하는 방안과 더불어 울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모색하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과 유인책을 정책적 차원에서 제시한다.

---

## A Study on Revitalizing Tourist Indust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conomy of Ulsan

Chang, Byung- Ik  
Professor of Economics

### <Abstract>

Today, tourist industry emerging as a new independent industry. Tourist industry, which is often referred to as fourth industry, should no longer be perceived as a part

---

\* 본 연구에 많은 조인과 자료를 제공해 준 신라대학교 경제학과 김상권 교수와 본교 교육대학원 이수동박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of tertiary industry. Rather, it should be categorized as an independent industry which has its own importance. Since tourist industry is encouraged not only as a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must systematically rediscover their social, natural, and cultural conditions and assets by which they can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and boost finance and economy.

This paper discusses the problems and prospect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tourist industry of the city of Ulsan based on the principle that tourist industry means the preservation of nature, not the destruction of it. In addition, this paper searches for plans to develop the excellent natural environment of Ulsan by different categories and seeks the possibilities of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comprehensive tourist industry plans of the city.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e conditions and strategies for attracting tourists.

## I. 서 론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한국의 산업화와 공업입국의 상징적 도시로 명실상부하게 그 역할을 다해왔다. 35년간의 간단없는 공장가동과 공업생산은 울산의 지역경제 발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 경제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이처럼 한국 산업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울산이, 더욱이 7대 광역시로 승격된 지금에 와서는 공해와 오염 그리고 환경파괴의 도시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제 광역시 승격과 함께 울산은 미래 지향적 지역경제 사회 발전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종래와 같이 오로지 중화학공업기지, 생산의 중심지만으로서의 면모에서 하루속히 탈피하여 매력있고 살기좋은 생활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파괴가 아니라 환경보존을 절대질명의 과제로 삼고 공해산업이 아니라 무공해산업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중의 하나가 관광산업으로 관광산업은 지방재정의 확충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도 수익성이 있는 대안이다.

본고에서는 울산의 미래 지향적 대안산업은 환경도시(Eco-City)를 목적하는 관광산업이라고 주장한다. 관광산업이 미래 지향적 Eco-산업이라 함은 무엇보다 유일한 무공해 산업이라는 데 있다. 21세기의 삶의 질은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지적이며 문화적적이고 건강추구적이며 정신적 풍요를 누리는 것을 그 지표로 삼을 것이다. 이러한 21세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산업이 바로 관광산업이다.

이 논문은 광역시 승격과 더불어 울산의 지역경제 발전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관광개발이 결코 관광자원과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고 경제재화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재인식하고자 하며 아울러 이제 광역시로 승격된 울산이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면서 경제적인면에서 수익성을 높이는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대해 울산시 및 울산지역 주체들의 역할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이제 관광산업을 단순히 3차산업인 서비스업의 일부분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독자적 산업

부문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관광산업은 순수하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는 지역사회·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육성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사회·자연·문화적 제조건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관광산업의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가시화한다.

셋째, 기존의 관광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망한다. 특히 중점을 두어 고찰해야 할 부분은 울산시는 많은 관광자원을 방치하거나 비체계적이고 무분별한 개발로 오히려 자원이 파괴되거나 자연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결국은 관광개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는 데 일조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넷째, 관광개발은 자연 환경의 파괴가 아니라 보존을 의미한다는 기본논리에 입각해서 주어신 관광자원을 영역별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1997년 울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모색하면서 마지막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과 유인책을 정책적 차원에서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관광산업의 육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분석이 시도되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미비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한계점이다.

## II 삶의 질의 척도와 관광산업의 효과

### 1. 삶의 질의 척도와 관광산업

관광산업은 지금까지 이북해농은 1차산업에서 4차산업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독자적 산업군으로 부상하고 있다.<sup>1)</sup> 이제 관광산업을 단순히 3차산업인 서비스업의 일부분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독자적 산업분야로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관광산업은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모든 자연, 사회, 문화적 조건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외화획득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꾀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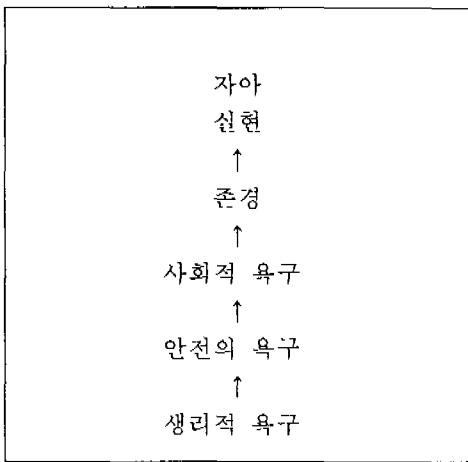
관광산업은 다른 여타 산업에 비해 유일하게 친환경적 무공해 산업이다. 또한 앞으로의 관광은 전통적으로 이해해왔던 유람이나 놀이처럼 시간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무한한 지적 욕구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육체적·정신적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주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함과 동시에 노동력을 재충전하는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재인식해야 한다. 관광산업은 개인을 위해서는 단순히 무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자아실현과 함께 문화적·정신적 가치창조를 위한 적극적 의미를 부여한다.

21세기 삶의 질의 척도는 경제적 만족도와 아울러 다양한 문화적 욕구의 충족성도가 될 것이다. 삶의 질의 지표는 더 이상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정신적 풍요를 누리느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대사회는 여가의 대중화의 시대이다. 그래서 현대인은 더 많은 여가와 휴가를 요구하고 그 여가와 휴가를 통한 문화적 삶의 추구하고 건강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고자 한다. 휴가의 관광적 욕구는 개인주의화하는 현대인의 자아성취와

1) 관광산업은 21세기의 미래산업으로 제 5차 산업의 의미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매슬로우(A.M. Maslow)의 인간의 욕구단계설에서 보면 자아실현은 마지막 단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이다. 이 자아실현의 욕구는 생리, 안전, 사회적 그리고 존경의 하위체계의 욕구가 충족된 후 추구되는 최상의 욕구의 단계로서 삶의 질적 충족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21세기의 삶의 질의 척도는 더 이상 세탁기나 TV가 아니라 연간 얼마나 많은 여·휴가를 가지며 자아실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느냐가 될 것이다. 관광산업은 바로 이러한 삶의 질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21세기의 중추산업이 될 것이다.

<표 II-1>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



자료: A.M.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Harper and Row Publisher, 1954

한국사회에서도 이미 1980년대 말부터 경제성장과 아울러 휴일과 주말 그리고 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고 있다. 휴가는 경제적 생산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신적 재충전을 의미한다. 현대인은 이를 위하여 자연과의 친화와 지적 문화적 경험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교양·교육적 관광은 집단 구성원들의 통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당연히 물질적 풍요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삶을 향유하려고 하면 주어진 조건을 얼마나 잘 친환경적으로 유지하며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 2. 관광산업의 경제·사회적 효과

### (1) 경제적 효과

1993년 미국의 관광산업 수입은 750억 달러로 미국 국민총생산의 6%를 차지하여 미국

최고의 수출품으로서 부상했다. 관광산업의 수익도 자동차와 식품업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sup>2)</sup> 관광산업은 대외적으로는 외화획득의 주요원천이 되고, 직접적으로는 소득증대를 가져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주요한 전략산업으로 등장했다. 또한 1992년에는 거의 600만명이나 되는 관광산업의 고용인구를 기록했으며, 의료사업을 제외하고 가장 큰 고용능력을 보여주었다. 미국 관광산업의 고용율은 지난 10년간 56.3%가 증가했으며 미국 전체 산업성장률의 2배를 넘었다. 이러한 미국의 관광산업은 2005년에는 지금의 두배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sup>3)</sup> 관광산업은 세계무역의 7%를 차지하여 석유, 자동차에 이어 3대 무역상품으로 부각하면서 역시 2000년대 최대의 산업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sup>4)</sup>

관광산업은 울산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기대되는 유망한 미래산업의 한 분야이다.<sup>5)</sup> 21세기 울산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수익은 바로 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울산의 광역시 승격은 과거의 공업생산 주도적 도시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제빙비하여 시민의 균형적 삶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잠재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관광산업은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유망산업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의미는 무공해 산업이라는데 있다. 특히 울산은 1962년 이래로 공업입국의 기능을 수행하느라 공해일번지로 낙인찍힌 도시이다. 그래서 무공해의 관광산업은 결코 경제적 효과만이 아닌 21세기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설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2) 사회·문화적 효과

관광산업은 한 지역이나 국가의 경제적 측면에만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영역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 즉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회구조의 변화 뿐만 아니라 관광지의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에 형성되는 상호작용의 관계는 문화적 가치관의 변화에도 영향을 준다. 사회적 변화로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과 서비스의 기능 확대와 인구의 밀집화 현상이 일어난다. 수입의 증대로 물질지향적이 된다. 관광은 주로 서비스업적 영역이 많아 여성의 취업기회가 확대되며, 이것은 여성들의 수입증대를 유도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 가장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물론 관광의 사회적 영향은 언급한 긍정적 결과외에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부정적 요인들도 많이 있다.<sup>6)</sup>

다음으로 관광은 고래부터 문화접변의 한 과성으로서 한 사회의 문화변동과 동적 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산업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고 나아가서 성신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기술과 교통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은 관광의 욕구와 기회를 더욱 증대시키고 문화접변(acculturation)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관광은 직·간접으로 한 사회의 문화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행사한다. 문화접촉을 통한 문

2) R.W. McIntosh/C.H. Goeldner/J.R. Brent Ritche(신현주외역), 관광학원론, 세종연구원, 1996, 26쪽

3) 상개서, 26쪽

4) 권용우 외, 관광과 여가-관광시리학적 접근, 한울, 1995, 41쪽.

5) 부산지역 관광산업의 경제성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관광산업은 소득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 부가가치 창출효과, 재정수입창출 효과 및 외화획득율이 전체산업 평균보다 높은 유망산업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부산관광종합개발계획, 1996. 12, 255-270쪽 참조

6) R.Ch. Mill(손외식의 편역), 현대관광론, 범한서적, 1993, 146쪽.

화변동은 관광객들의 물질주의적 생활방식과 개방적 사고에 영향을 받으며 탈전통적 의식화도 가속화된다. 동시에 지역이나 자국의 문화가 관광객을 통해서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한편으로는 지방화의 고유성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의 탈국지화와 함께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게 된다.

울산은 현대화의 상징인 산업도시로서 알려져 있으면서도 문화적으로 폐쇄적이다. 울산은 도시화의 초기부터 공업도시로 성장하여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세계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은 고도화된 산업단지 그 자체가 문화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교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와 의식의 개방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무엇보다도 관광을 통한 문화비교와 상이한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형성은 문화의식의 세계화에 일조하며, 문화충격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 Ⅲ. 울산의 관광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 1. 관광 현황

울산은 동남으로 바다를 끼고 서북으로는 산악으로 형성되어 천혜의 자연관광조건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 자원도 곳곳이 분포되어 있으며 공업도시로서의 현대 산업문화의 상징적 도시이기도 하다. 이렇게 울산지역은 풍부한 자연·문화적 관광자원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경제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따라서 울산시민의 여·휴가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울산은 자연·문화적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로 자연경관 뿐만 아니라 문화자원도 파괴일로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연관광자원은 쓰레기와 폐수오염으로 인해 아사직전에 놓여있다. 이러한 자원은 관광자원으로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민의 안방과 같은 삶의 터전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대외관광객 유치는 주로 산업시찰이라는 명목에서 이루어졌다. 울산은 경주와 부산의 관광객이 산업시찰을 위해 잠깐 머물다 가는 경유지로 기능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제 산업관광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자연·문화적 관광유인책을 개발해야 한다. 인구 100만명의 울산 광역시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대외관광객 유치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표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울산의 관광객 수는 1974년부터 5년후인 1979년에는 약 2.3배로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74년에 비해 거의 두배로 증가하였다. 또 1980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약간 감소하고 1984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1992년도가 되면 관광객수가 150만명을 넘어서고 1995년에는 3년사이에 약 5배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 관광객을 성향별로 보면 울산을 거점으로 하는 장기체류자이기보다는 부산과 경주를 거점으로 하는 경유관광객들이다. 그러므로 관광객수에 비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데는 미흡했다. 1986년 약 57억원의 관광수입이 1992년에는 약 137억원으로 증가했다.<sup>7)</sup> 울산은

거점으로 하는 장기체류 관광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경제적 효과도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앞으로의 울산 광역시는 체류 관광객의 유치에 주력해야 한다. 울산지역의 자연·문화관광적 조건을 이용하여 산업시찰의 1차적 목적에 이은 체류관광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즉, 스위스의 회의관광(Conference Tourism) 처럼 울산도 외국인 및 대외 산업시찰단의 겸목적 관광(Combined Tourism)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표 III-1> 연도별 관광객 현황

	외국인	내국인	계
1974	7,489	182,185	189,674
1979	14,418	427,928	442,346
1980	9,513	449,423	458,936
1984	14,998	844,822	859,820
1989	12,255	1,179,074	1,191,329
1992	14,617	1,497,031	1,511,648
1994	46,029	3,164,322	3,210,351
1995	80,401	7,520,697	7,601,098

자료: 울산상공회의소, 울산공업 30년사, 1992 울산시, 시정백서, 1997  
울산시, 울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 1997

산업관광을 겸목적관광으로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울산시민 등 내국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1990년 이후 울산시의 산업시찰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객은 급증하고 있으나 울주군 지역의 자연·문화관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또한 울주군 지역의 자연·문화관광객은 외지 관광객이기 보다는 휴일과 주말의 휴가를 즐기는 울산시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추세는 2000년대에 들어서더라도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며, 울산광역시의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체계적 관광정책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1989년 한국관광공사는 부산·경주권의 관광수요를 1991년 4,699만명, 1996년 5,893만명, 2001년 6,955만명, 2006년 약 9,200만명, 그리고 2011년에는 약 1억명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부산·경주권의 관광객은 울산의 관광매력에 따라 유치가능한 잠재관광객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울산의 관광수요는 <표 III-2>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42%로 증가하고, 2011년에는 76%의 증가율을 예측하게 한다.

<표 III-2> 울산시 관광수요

(단위: 천명)

구 분	1996	2001	2006	2011
관 광 객	8,500	12,110	14,277	15,000

자료: 울산시, 울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 1997. 3, 128쪽

7) 울산시, 울산통계연보, 1996년.

부산·경주권의 관광객 증가는 울산의 관광객 증가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남권중에서도 부산-울산-경주의 연계적 관광개발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기대된다. 이러한 분석은 부산·경주 관광객이 울산관광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울산의 산업관광이 부산·경주관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예측에 근거한다. <표 III-3>은 울산이 차지하는 부산·경주관광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울산시는 울산시 관광객의 부산·경주권의 점유율이 1991년 1.86%에서 2006년과 2011년에는 각각 약 15.6%와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III-3> 울산의 관광수요와 부산·경주권의 점유율 (단위: 천명, %)

구 분	1991	1996	2001	2006	2011
부산·경주권	46,990	58,932	69,559	91,591	102,619
울산	872	8,500	12,110	14,277	15,000
울산점유율	1.86	14.42	17.41	15.59	14.62

자료: 울산시, 울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 1997. 3, 128쪽

## 2. 울산 관광산업의 문제점

### (1) 교통

현대 관광산업의 성공은 관광지와의 접근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주는 교통조건의 형성, 충분한 휴식공간과 서비스 그리고 쾌적한 환경의 3가지 조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중에서도 한 국가의 발전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사회간접 자본으로서의 교통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거의 결정적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울산은 대외적으로 본다면 매우 편리한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다. 울산은 부산-울산-경주를 잇는 동해남부선과 4차선 국도, 경부고속도, 경부고속철도, 항공운송 그리고 해운운송까지도 가능한 요충도시로서 교통의 천혜를 입고 있는 도시이다. 그럼에도 울산은 교통혼잡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먼저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인 도로의 확충과 정비에 대한 부자가 따르지 못함으로써 교통체증이 극심한 실정이다. 그리고 울산의 도시계획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간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한 채 진행되어 왔다. 특히 1990년대 100만명의 인구를 예측하지 못한 근시안적 도시계획은 교통의 체계적 정비를 불가능하게 했다. 거점도시의 내적 문제 뿐만 아니라 기점도시를 중심으로 관광지에의 접근을 원활하게 하는 교통체계도 비비하다. 울산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율은 14.6%에 불과하다. 이는 부산의 16.1%, 대구 17.6%, 대전의 22.4%에 비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교통현실은 관광욕구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 위해서는 중대한 저해요인이 된다. 특히 성수기 일산·정자방향과 인양권의 교통체증은 아예 관광을 포기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울산 광역시는 도시간신도로 9개노선(총연장 420km)을 개설할 예정이며, 오는 2016년까지는 도로율을 27%로 확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관광교통의 체증분제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 (2) 숙박서비스업

관광서비스업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숙박, 음식, 위락시설, 관광안내소의 여신도 질적으로 미흡한 상태이다. 식품업소(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휴게음식점)의 경우 1985년에 3,704개였으나 1990년에는 6,036개로 증가했으며 1995년에는 11,087개로서 급증했다. 특기할 만한 점은 현대인의 “빠른 이동”에 적합한 서구식의 휴게음식점이 1,395개로서 전체의 12.6%를 차지하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숙박업소의 수는 1985년에 503(호텔 5, 여관 266, 여인숙 232)개였으며 1990년에는 669개로 증가했다. 그중 호텔이 10개로서 2배로 증가했다. 그런데 1995년의 숙박업소 수는 오히려 653개로 감소했다. 호텔은 그사이 11개까지 증가했으나 10개로 줄어 1990년 그대로이다. 그 대신 장급 여관과 모텔은 증가했고 여인숙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숙박서비스업의 양적 증가는 현실적 수요를 반영하기는 하지만, 시설의 고급화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더 큰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증가추세를 보여주는 가든과 모텔은 환경파괴를 유발하고 지나치게 향락적 산업으로 기울어져 관광본래의 기능에는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관광수요기에는 대체기능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 (3) 환경현황

관광개발은 여타의 정책적 개발과 마찬가지로 환경변화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 영향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지만 관광개발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관광산업은 육성될 수 없다. 관광자원으로서의 자연환경은 자연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관광적 가치이다. 그러나 관광객의 편의와 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을 변화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의 정책부재와 특정집단과 특정인의 특혜적 조치나 무분별한 개발논리에 의해 빚어진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이 관광산업의 근본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관광자원으로부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한다. 특히 그린벨트의 무원칙적 형질변경, 환경파괴적 시설물허가, 산업폐기물의 무단 투기 등은 자연관광의 환경을 파괴하는 주요 요인들로 지적된다.

관광개발은 관광가치가 높은 좋은 환경을 잘 보전하는데 있는 바, 관광개발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된다는 것은 자가당착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환경파괴의 실례로서는 먼저 21세기 “그린 울산”에 대한 용역 최종보고회에 의하면 연장 45km의 태화강 주변에는 총 3백26종의 각종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나 수질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그 수는 심차 줄어들고 있다. 공단지역의 해안은 공장폐수로 오염되어 있고, 일산·성자, 진하, 서생 바닷가도 생활오수와 쓰레기 투기로 오염일로에 놓여 있고, 가시산, 간월산 신불산, 영취산 등 등산로 구석 구석에 쌓인 쓰레기는 환경오염의 극치를 의미하며 인양사전성과 등억리 등 골짜기마다 흉물스럽게 들어선 “가든”과 “모텔”로 자연경관만 파괴될 뿐만 아니라 날까지 짙어가고 있다.

특정녹지 지역이 무차별 용도변경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6년 도시기본계획안은 중구 진장, 명촌 일대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기로 하고 있다.<sup>8)</sup> 특히 생태계 보전의 상징으로 알려진 정족산 부재치늪이 대뉴포 공원묘지 조성으로 위기에 처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환경의 파괴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모순에만 기인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환경과 인간에 대한 관계의 물이해적 의식이 더 큰 문제를 유발한다. 이렇게 자연경관은 인간의 비양심과 수준낮은 의식으로 파괴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IV. 관광자원의 개발현황

관광산업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이 시급하다. 그러나 관광개발은 현실적으로 많은 난제에 봉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관광개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지배적이다. 관광지 개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기존의 관광지가 처해 있는 현상의 평가에 기인한다. 인구의 밀집과 임시방편적 시설의 난립, 환경오염같은 관광공해는 관광개발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부정적 현상이다. 이러한 환경오염이나 파괴 등의 문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개발의 난립으로 빚어진 결과이다. 특히 최근 증가일로에 있는 가든과 모텔은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주요 실책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환경파괴적 현상과 관광지 현황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관광지로 개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관광개발에 대한 적극적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정부나 주민 그리고 사용자 모두가 근시안적 일회주의적 효과에만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개발은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연과 사회 그리고 문화적 조건을 보존함으로써 관광가치를 유지한다. 관광개발은 결코 파괴적일 수도 없으며 파괴식이 되어서도 안된다.

관광개발은 주어진 자원 그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고 보존하며 관광객들이 그 가치를 향유하도록 교통을 위시한 세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다.<sup>9)</sup>

이렇게 관광개발은 주어진 조건을 관광가치화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그래서 관광자원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는 것이다.<sup>10)</sup> 관광개발은 항상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산업이다. 그래서 미래에는 관광을 전통적 시각처럼 시간소비를 위한 무위(無爲)로서 물가치적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 스스로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도록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일한 산업으로 이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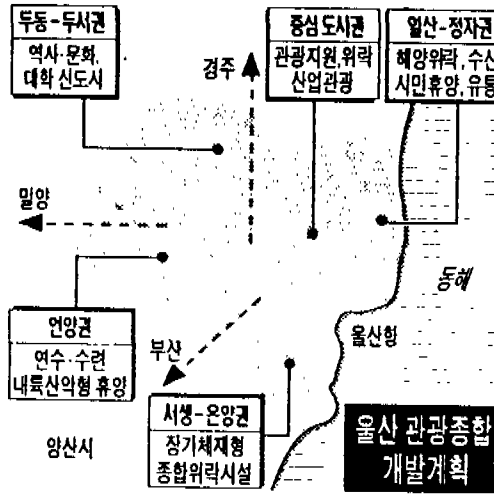
8) 이 외에도 2016년 도시기본계획은 한국카프로락탐 등이 소유한 남구 부곡동 일대 공원지구 11만2천여㎡를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비롯, 태화강상류지역에 위치해 있어 수질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높음에도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소재 (주)금강 언양공장의 생산녹지 8만9천여㎡를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했다.

9) R.Ch. Mill, 전게서, 202쪽.

10) 권용우외, 전게서, 63쪽.

1. 울산의 잠재 관광자원과 특성

<그림 IV-1> 5대 관광권역



관광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자연과 역사문화 그리고 위락시설이다. 그외에도 오늘날은 자연조건을 이용한 온천휴양지와 수련원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벤트사업도 각광받는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는 1997년, 1996년의 연구에 이어, 울산을 5대 관광권역으로 나누어서 장기적으로 개발해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다. 울산시는 5대 권역의 관광자원을 <그림 IV-1>, <표 IV-1>과 같이 권역별로 특성화하여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표 IV-1> 5대 관광권역의 주요 개발목표

권역	개발목적	이용유형	개발가능시설
중심도시권	관광지원 산업관광 국제관광지	일일체재형 산업관광객	관광지원센터, 호텔 산업박물관
일산·정자권	해수욕장 해양휴양 리조트	유통인구, 지역민 시민주말휴양 일일체재형관광	컨벤션센터, 도심위락 해수욕장정비, 숙박시설확충 휴양형리조트, 관광기반시설 개선
서생·온양권	장기체제 종합리조트	휴양,보양형 장기체재형관광	관광숙박시설, 고급휴양시설
언양권	연수,수련장 온천위락 휴양지개발	기업체연수 학생수련수요	실버타운, 골프장, 수상위락시설 연수,수련원, 체력단련장 자원보전적개발
두동·두서권	역사,문화 대학신도시	경주권과의 연계 관광,단체관광	문화자원정비, 전원도시 청소년수련장, 먹거리관광 자원개발

자료: 울산시, 울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 1997.3, 166쪽

울산의 관광자원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위락 및 휴양을 위한 내륙형이 36%, 사면공원으로서 감상 및 탐방을 위한 산악형이 63%를 차지하며,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하는 내수면/해안형이 0.7%를 차지한다. 이러한 조건에 입각하여 내륙과 산악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개발과 관광 간접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내수면/해안형도 4계절적 관광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울산에 잠재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권역별·유형별로 특성화해서 조명하며 새로운 가능성도 구상해보고자 한다.

### (1) 중심도시권

중심도시권은 도시공원과 산업시찰이 주된 관광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성공원, 달동공원, 북정공원, 남산공원, 장생포공원 등의 도시공원은 아직 외부의 관광객을 유인할만한 특성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앞으로의 개발은 테마공원과 같은 특성화된 공원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울산시는 울산대공원을 울산시 남구 신정동과 옥동해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1997년부터 총 200억원의 시설투자로 이뤄지는 도시 중앙공원으로서, 향후 10년간 총 1,000억원을 추가투자할 계획으로 도시생태공원으로 개발할 예정이다.<sup>11)</sup> 울산대공원은 동물원이나 식물원의 조성으로 더 많은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

중심도시권의 핵심자원이면서 지금까지 울산관광의 중핵부분이었던 산업관광의 체제성비가 가장 시급하다. 식유, 조선, 자동차 등 80여개의 대기업체를 비롯 총 2천6백50여개의 기업이 울산 지역발전의 중추산업으로 성장되어 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은 이 중에서도 산업관광의 핵으로서 기능해왔다. 그러나 산업관광형태의 다양화와 이와 연계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중심도시권은 울산의 첫째 특징인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산업시설 전시장 또는 산업박물관을 유지하는 것은 산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시각적으로 경험하게 하며, 기계나 도구의 기술적 변천과정을 통해서 산업사회의 역사를 이론적 자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우게 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상품은 관광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상을 체계적으로 알고자하는 현대인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뿐만 아니라 바로 산업교육의 현장이 될 수도 있다.

울산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관광경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컨벤션센터를 계획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가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은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울산은 한국 산업발전의 중추도시로서 국제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산업관련 특수 컨벤션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앞으로 울산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대되는 사업이다.

중심도시권의 역할은 물론 울산이 세계적 산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도 노력해야 하지만, 울산지역 관광의 거점도시로 관광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체계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교통체계의 확립과 아울러 관광서비스 기능을 더욱 확충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제반 간접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특히 호텔, 숙박업 등 부수적 서비스업의 체계적 재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관광 체류지로서 야간

11) 울산시, 울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 1997.3, 168쪽.

관광을 위한 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태화강 고수부지를 활용한 시민공원의 조성, 태화강 수상위락공간, 수상예술공간의 조성 등은 체류관광객의 야간관광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휴식공간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울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 관광자원들 중에서 명촌 산업관광단지, 태화 강변지구 워터프론트 개발 그리고 함월산의 도심상징공원의 조성은 단·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한 관광사업으로 사료된다.

<표 IV-2> 주요 관광자원 개발계획

대상지명	행성구역	개발성격	개발계획
울산대공원	남구신성동, 옥동	도시생태공원	-테마공원, 교육, 위락, 교양, 체육시설
명촌산업관광단지	중구명촌동일대	산업관광의집약화	-현대테크노파크(전시시설, 박물관), 대형쇼빙홀, 기념관 등
함월산(Peak Park)	중구 함월산	도심상징공원	-울산탑(전망대, 휴게시설) -정상공원 조성
태화강변지구	중, 남구 일대	워터프론트 개발	-시민체육시설, 옥외관람 시설, 수상크루즈시설
Walk Tour Trail	중, 남구 일대	도보관광코스	-도심지내 도보관광코스 (명촌-학성공원-울산교-울산 문화회관-학성교-명촌)

자료: 울산시, 울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 1997.3, 170쪽

## (2) 일산·정자권

일산·정자권은 해안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주요 관광지로는 울기공원, 일산해수욕장, 주전해변, 정자항, 굴마우, 당사 몽돌해변, 용바위, 남북천 봉수대 등이 유명하다. 핵심적 관광자원은 해수욕장을 비롯해 활어회의 먹거리관광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광자원은 계절성이 강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 해안형 관광과 아울러 해안과 연결된 산악의 경관을 이용한 자연휴양지, 별장촌 등과 같은 개발과 해상이나 해지불 이용한 새로운 관광상품은 계절성을 타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고려해볼 수 있다.

&lt;표 IV-3&gt; 주요 관광자원 개발계획

대상지	행정구역	개발성격	주요도입시설
일산지구	동구일산동	해양위락시설지	-일산유원지 개발계획
정자지구	울주군강동면 정자리	유통,수산물가공, 해양리조트복합지구	-자연산 활어회단지 조성 -해양스포츠펠타, 해수욕장,선착장, 해수풀장
신명지구	울주군강동면 신명리 지경	해양휴양지	-해변관광숙박시설 -별장촌 지대
당사지구	울주군강동면 당사일원	해양휴양지	-월드컵예비 축구경기장 -해양휴양시설
주전휴게소	동구주전동 주전고개	휴게소 개발	-도시외곽 드라이브코스 기능 제고 -봉대산의 봉수대 복원에 따른 탐방기능 부여
부룡산지구	울주군강동면 신현일원	농어촌휴양지	-그린벨트지구내의 자연생태계 학습원 -자연휴양지

자료: 울산시, 울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 1997.3, 173쪽

### (3) 서생·온양권

서생·온양권은 부산광역시와의 접경지역으로 울산시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주말휴양지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 기본관광시설과 간접시설이 재정비 확충된다면 관광의 경제적 효과가 매우 기대되는 권역이다. 주요관광자원은 울산온천, 진해해수욕장, 대운산, 대운천 계곡, 처용암, 목도, 나사해수욕장, 간절감동대, 온산공단 등으로서 해안형, 내륙형 그리고 내수면형을 고루 갖추고 있는 관광권역이다.

&lt;표 IV-4&gt; 주요 관광자원 개발계획

대상지	행정구역	개발성격	주요도입시설
서생지구	울주군서생면 서생,진하리	4계절형 종합 청년 해양 위락단지	-마리나시설,해양민속촌 건립,서생포성- 진해해수욕장-명선도간 케이글카, ocean dome, 청년컨벤션센터, 음악관, 청소년수련장
울산온천지구	울주군온양면 발리	온천휴양지구 개발	-주말 가족형 온천관광 휴양지 -집단지설지 개발
대송지구	울주군서생면 대송,나사리	해양관광휴양지	-고급빌라형 숙박촌,실버타운,큰도미니엄, 청소년수련원 -실버타운,요양시설
대운산지구	울주군온양면 내광리	청소년 산악수련장	-농어촌 관광농원 -휴양림 조성
대운천지구	울주군온양면 운하리	농촌휴양지	-내수면형의 캠핑장,가족호텔 등 가족중심 시설

자료: 울산시, 울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 1997.3, 177쪽

(4) 언양권

언양권은 내륙·산악형 관광권으로 자연경관이 핵심관광자원이다. 자연은 인간의 삶의 공간임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이다. 자연의 관광적 조건은 희귀하다거나 아름다움 또는 웅장함 등이 중요한 관광적 매력이며 가치이다. 이처럼 언양권은 희귀하고 수려한 산악과 주변지역을 관광자원화하는 대표적 자연관광권이다.

특히 언양권은 가지산 도립공원과 신불산 시립공원을 축으로 울산의 대표적 산악관광자원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지역이다. 언양권은 수량이 풍부한 계곡을 비롯하여 석남사, 작천정, 자수성 공원, 반구대, 홍류폭포, 배내골, 파래소폭포, 이천자연휴양림, 무제치늪 등 주로 자연관광자원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언양권은 영남알프스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그리고 여가관광지로서 이미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언양권은 산악등산, 계곡휴양, 배내골의 수련원, 고찰방문의 역사관광에 이어 앞으로 개발계획으로 있는 등억온천이 가동된다면 언양권은 온천휴양지로서 기능을 첨가하여 산악형 또는 내륙형 관광지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등억온천 개발은 온천수의 부족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어 새로운 유형의 등억유원지를 구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언양의 4계절 관광권화를 위해서 자수정 동굴 유원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 과제이며 이벤트사업으로서 비성수기에 자수정동굴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작천정의 벚꽃축제와 함께 지역의 자연과 역사적 조건을 최대한 관광자원화하는 경우이다. 언양의 이러한 관광업지를 최대한 경제적으로 효율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개발가능성은 자연경관을 이용한 컨벤션센터의 조성이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은 언양의 작천정 관광단지로서 명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계절적 한계성을 탈피할 수 있으며, 최대의 다양성을 보유하는 관광지로 부상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표 IV-7> 주요 관광자원 개발계획

대상지	행정구역	개발성격	주요도입시설
언양, 등억, 상북	울주군언양읍, 상북면	거점관광지원도시	-산악형, 온천형 관광도시
석남사지구	울주군상북면 덕하리	산악 빛 계곡형 관광지	-기존관광지(집단지설지구)
등억온천지구	울주군상북면 등억리	온천휴양 및 위락형 관광지	-기존관광지(신불산군립공원)
영남알프스지구	울주군상북면 등억리	산악관광지	-산정상부를 활용한 집단지설지구 -등억온천-간월산 케이블카
자수정지구	울주군상북면 등억리	동굴공원 및 내수면형 관광지	-작폐천 및 자수성광산 주변의 계곡형 관광지
언양읍성지구	울주군언양읍 동부리	역사문화체험의 장	-언양읍성의 정비

자료: 울산시, 울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 1997.3, 180쪽

(5) 두동·두서권

두동·두서권은 울산의 북부내륙에 위치하며 경주관광 권역과 인접지역으로 특히 역사문화자원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주요 관광자원으로는 국보로서 천전리각석, 박세상유

적지, 관문성 등의 역사관광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이 있다. 그리고 90년대 부터는 봉계 한우단지<sup>12)</sup>가 조성되어 새로이 전통 먹거리 문화단지를 형성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두동·두서권의 관광자원은 역사문화적 자원을 탐방하기 위한 경유관광지로서의 역할외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도 지리적 조건과 역사, 문화적 진통을 되살려 이벤트사업을 구상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박제상을 기리는 가칭 “망부석 축제”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민의 역사·문화적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부심을 형성하게하며 농촌의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울산시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울주군 두동면 지역에 대학신도시가 형성되게 되면 정보화거점지구로 기능을 하게될 것이다.

## 2. 울산시의 관광종합개발계획과 장기발전계획의 지표

이렇게 울산시는 울산을 5대 관광권역으로 나누어서 장기적으로 개발해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개발잠재력과 현실적 조건에 입각하여 우선적으로 일산·정자지구<sup>12)</sup>와 서생·언양권에 포함된 진하를 개발해야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지역은 모두 해안지역이라는 동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계절적으로 제한된 관광자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풍부한 자원이 잠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요 아이টে은 이미 개발이 된 상태이기도 하다. 이 지역의 관광자원화는 현실적으로 환경의 정화와 기존의 관광자원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4계절형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에 가장 적합한 지역은 언양권으로서, 자연경관을 이용한 교양, 교육, 위락, 휴양, 산행의 관광지로 개발이 기대된다.

언양권은 언양권 개발에서 언급된 것 외에도 단기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등산과 산행을 위한 제반 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앞으로는 건강을 위한 등산, 산행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될 전망이므로, 등산문화의 기반조성이 여타 위락지향적 관광산업보다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

## V 검목적 관광체계확립과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

### 1. 검목적 관광개발과 체계확립

울산은 거시적으로 보면 동남권에 위치해 있고 부산과 경주와 포항 그리고 대구의 중간

12) 특히 일산지구의 개발계획은 1997년 5월 현재 10여년이 된다. 따라서 일산지역은 관광진흥법에 묶여 있어 주민들은 재산권과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에도 아직까지 1단계 공사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공회사인 한진건설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어 왔으며, 1단계의 봉결을 위해서도 아직 100억여원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진건설은 이제와서 1단계 투자비만 주어진다면 다른 시공자에게 넘겨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다른 시공자 선택을 울산시에 권장했고 울산시가 승인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일산지역개발의 2단계는 982세대의 이주대책과 보상문제가 남아 있으며 약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7년 7월에 광역시 승격과 아울러 울산시와 한진건설이 제 3책타 방식으로 일산유원지 개발 투자계획을 세우고, 이 안의 의회의 승인과 함께 개발이 진행될 전망이다.



에 위치하면서 산업기반을 핵심 관광사원으로 하는 경합관광지이다. 울산은 국제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양산동도사와도 연계되는 지역으로서 앞으로는 경합관광지로서의 관광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곳이다.

1991년 현재 경주-부산권의 총관광객수는 46,432천명으로 전국 관광객수의 17.8%를 차지하며, 동남관광권의 46.3%에 해당한다. 또한 1986-90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은 3.1%여서, 증가하는 경주·부산권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울산을 단순한 경유지로서가 아니라 관광체유지로서 부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경합관광지의 입지와 아울러 울산은 검목적 관광을 체계화해야 한다. 검목적 관광은 스위스의 회의관광처럼 회의의 목적과 함께 스위스 관광으로 방문을 연장시킬 수 있는 관광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울산의 검목적 관광체계는 산업시골이라는 1차적 방문목적에 그 지역의 관광으로 연장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울산의 고유관광 개념인 산업관광객을 여타의 관광유인조건으로 장기체류하도록 유도하여 관광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인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은 울산이 무엇보다 세계적 규모의 공업단지라는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적 관광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산업규모에 이어 도시의 이미지 유지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태화강의 주변공간을 이용하여 울산의 야간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검목적 관광을 위하여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의 발굴과 조사를 통해 새로운 관광유인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5대 관광권역을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안목에서 체계적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연양을 중심으로하는 4계절 관광유인 사업의 추진이 검목적 관광체계의 관광적 효과를 가장 극대화하는 사업일 수 있다. 현재 개발중에 있는 동역온천과 사수정농굴의 관광자원화는 단·중기적 사업으로 가치있다. 마지막으로 검목적 관광의 성공은 역시 자위만을 발굴·개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5대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교통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2006년에는 검목적 관광의 1차적 목표가 실현되리라 본다.

## 2. 울산의 이미지 부각

### (1) 산업도시와 에코도시

지역관광은 그 지역의 특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그 특성과 고유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울산이미지 형성을 위한 정책의 중심되는 요소들은 공업도시, 역사, 문화, 벽거리, Eco-City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울산은 세계적 규모의 자동차, 조선산업을 갖추고 있어 산업도시로서 국제적 이미지를 형성하는데는 매우 많은 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관광적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 것은 미흡한 관광정책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관광코스의 체계화와 연계관광, 검목적 관광의 기회를 창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산업전시장과 국제적 산업박람회의 유지는 그 만큼 관광의 효과를 크게 하고 미래의 관광산업에 대한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21세기는 공업도시가 보편적으로 안고 있는 오염과 공해는 더 이상 공업도시의 상징적 이미지가 못된다. 적어도 60년대와 70년대까지는 섬유공장의 타오르는 불길은 울산의 꽃이요, 공장 굴뚝의 검은 연기는 울산의 발진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발전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환경오염은 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퇴치할 수 있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으며, 21세기의 선진국은 산업의 발전과 에코도시(Eco-City)의 균형적 발전을 기대한다. 환경파괴적 공업화는 더 이상 발전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친환경적 에코도시의 건설만이 앞으로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 이것이 또한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울산의 첫번째 이미지부각을 위해서는 산업도시와 에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2) 태화강축제

두번째로 울산의 공업발전의 것줄이며 울산발전의 기적을 낳았다는 태화강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1997년 8월 처음으로 개최되는 “태화강축제”의 활성화를 동해시 공업도시 그리고 친환경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중점 이벤트사업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태화강이 울산 공업도시의 상징으로 이미지를 형성하려면, 무엇보다 태화강의 오염분체부터 시급히 해결해야한다. 태화강을 비롯한 모든 하천과 강의 오염은 생활오수와 공장폐수가 주요인이 되고 있다. 비록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공단에서는 폐수정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의무화되어가고 있지만, 생활오수는 정화되지 않는 채로 하천과 강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다. 앞으로는 생활오수를 지역별로 집적하여 정화처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태화강의 이미지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울산의 기적을 낳은 태화강의 기적은 단지 전설로서만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태화강이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수변과 수상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울산의 아름다운 야경을 재창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체류관광객을 위한 야간관광의 기회를 확대하는데도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 (3) 이벤트관광사업

다음으로는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 역사, 문화를 바탕으로한 고유한 축제를 더욱더 체계화, 특성화하여 대외적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벤트화해야한다. 이벤트관광의 연구와 개발은 21세기의 중요한 관광산업의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이벤트사업은 한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케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인지정도를 강화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자연이나 문화적 조건을 바탕으로 형성된 이벤트관광산업은 지역주민의 인식을 새롭게하여 향토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벤트관광이 가져오는 경제효과를 한가지 예로 든다면 독일 바이에른 주의 수도인 “뮌헨”에서 개최되는 바이에른의 맥주축제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10월축제”(Oktoberfest)는 매년 평균 600만명의 방문객들로 붐비고 1993년 축제의 수입이 약 1백억마르크(약 5조원)로 1993년 우리나라에 외국관광객들이 지출한 돈의 약 2배의 수준이다.<sup>13)</sup> 따라서 관광산업중에서도 이 이벤트사업은 비용절감효과가 큰 소프트웨어 관광상품으로 21세기의 지역활성화 전략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각 지역의 이벤트행사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울산의 문화적 이벤트행사로써 공업축제 또는 공단문화제, 저용문화제, 배꽃축제, 울산예술제 등은 대외적으로 울산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문화제이다. 지역 이벤트

13) 정강환, 이벤트관광전략: 축제와 지역활성화, 일신사, 1996, 29쪽.

사업은 지역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유지하고 관광자원화하는 것이므로 울산관광의 권역별 이벤트사업을 구상하는 것도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도시중심권에서는 학성공원축제도 앞에서 언급한 축제와 더불어 구상해볼 수 있고, 일산·정자권과 서생·온양권은 여름철의 “바다축제” 또는 “활어회축제”, 언양권은 “자수정동굴축제”, “작천정벚꽃축제”, “청소년켄프축제”, 두동·두서권은 “몽개 한우불고기축제” 등의 가칭 문화행사를 구상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이벤트행사는 해당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그 지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이상성도 동시에 구상한다면 좋을 것이다.

또한 지역의 문화행사일수록 지역의 통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진행되어야 한다. 모든 행사는 주최측의 노력만으로서 성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반주민, 기업,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 지역내의 모든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이 소외되는 관광행사나 개발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행사가 단순히 주최측의 집안축제로 끝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대외적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인해야 하며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 스스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기획하여 단순히 구경하는 관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광이 되어야 관광객의 만족도를 더 높일 것이다. 이러한 문화행사는 일회적 유희가 아닌 지속성과 미래지향적 가치를 창조하도록 기획해야 한다. 광주비엔날레도 최근 지역이벤트로서 광범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석어도 다음의 한국 10대 지방민속축제로서 자리매김하는데는 그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정부의 부단한 노력없이는 불가능하다.

&lt;표 V-1&gt; 한국 10대 지방민속축제 현황(1994년 기준)

행사명	개최시기	개최장소	주관	주요 행사내용
광산 고싸움놀이	2월,정월 대보름	광주 광역시	광주고싸움 놀이보존회	-고싸움놀이 -농악놀이, 민속놀이 등
진해군향제	3월	경남 진해시	이충무공 호국선양회	-전야제: 취주악연주외 9종 -추모제: 강강수월래등 6종 -경축식: 축하비행 등 7종 -경축시가행진: 사물놀이공연 -문화행사개최
남원군향제	5월	전북 남원시	춘양분화 선양회	-전야제 -전국판소리명창대회 -진국향미술타전 -국악공연,농악공연
진도영등재	5월	전남 진도군	진도군청 문화공보실	-전야제:시가행진,축포,국악경연 -영등살놀이:뽕할머니제사 및 용왕제,영등살놀이,해원굿뒤편이 -민속분화행사:농악,다시래기, 셋긴굿,진도북춤놀이
강릉단오제	6월	강릉시 남대전	강릉문화원	-제례 -강릉단오굿,관노가면극 -강릉민요,농악 등 -강릉부사 영신행렬 재현
전주풍남제	6월	전주시	풍남제전 위원회	-전주대사슴놀이 전국대회 -전주서화,백일상 대상전 -시민걷기대회 -기타 체육행사 -풍물시장 운영
백제문화제	10월	부여읍 일원	백제문화 선양회	-전야제:봉화봉송,세형행사 -백제대왕세 등 10종 신통민속행사 -가장행렬,문화예술행사 -백제왕비,공주선발대회
충북예술제	10월	청주시	충북예총	-민속행사:국악경연대회, 농악경연,사물놀이,시조경장,택견시범 -경축행사:축등행렬충북예술인점화식, 국악대연주 -부대행사:향토음식전개설,정품병원 강주선발대회
한라문화제	10월	제주도 일원	제주도청 문화예술과	-한라산신제,기리축제,분들의 축제,축등행진 -민속경기,향토축제,사투리축제, 마을축제 등
신라문화제	10월	경주시	경주시청 문화과	-전야제,제전,공개행사,민속공 연,예술불교행사,학술진시회

자료: 이대회, 관광산업발전론, 일신사, 1996, 243쪽

(4) 먹거리개발

마지막으로는 먹거리 소재를 확보하는 일이다. 연양·봉계한우불고기, 방어진·징자 활어회, 서생진하의 활어회 등은 이미 잘 알려진 것이기는 하지만 주변의 관광시설을 재정비하고 사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만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3. 관광정책과 관광산업 인식의 전환

관광산업의 성공은 지역사회의 자연, 사회조건, 인문, 역사, 문화적 특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1차적으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보존하는데 달려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분야는 정책적 무관심의 대상이었다. 특히 관광분야는 정책적인 지원이 없이도 외형적으로는 현상유지가 되는 것으로 인식했고, 직어도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관광산업을 생산과 관련된 산업으로 보기보다는 낭비 또는 소비 분야로만 인식했다. 이러한 결과로 관광산업이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해야하는 정책적 지원산업이 될 수 없었다. 따라서 21세기를 지향하는 울산시는 이제 이와같은 전통적 시각에서 탈피하고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관광산업을 지원해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관광산업이 정책적 지원산업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장 많은 관광수익을 올리고 있는 많은 선진국들은 적어도 독립된 부처가 관광장거나 타 부처의 1개 국이나 과에서 관광산업을 독자적으로 관장한다. 특히 관광업무에 관한 한국의 실정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부 관광국 이외에 17개의 유관부처로 분산되어 있다.<sup>14)</sup> 따라서 관광국과 같은 독자적 행정능력을 갖춘 행정단위가 설립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이러한 독립기관을 통해서도 관광산업에 인식의 전환과 미래성에 대한 비전을 매개할 수 있다. 특히 관광정보의 체계적 확립을 위한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관광자원의 개발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원들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 또한 관광정책의 중요한 사업이다. 더욱이 문화재가 관광서 가치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석으로 지방정부의 실패이다. 예를 들면 90년대 부터는 반구대 암각화나 천전리각석 등의 역사·문화적 가치재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그 자체는 형식적으로나마 보호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관광객 수용과 관련한 후속조치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

관광산업의 성공은 정책적 지원이나 물적 자원의 개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관광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장의 인적 자원의 역량에 달려있다. 이들의 의식과 태도가 관광객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의 제도적 장치를 통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관광안내원의 자격제실시를 고려함과 동시에 관광종사원의 정규교육을 통해서 관광의 실적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여타 주역주민들과 관광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적 자원에 대해서도 정규 또는 비정규적 교육을 통해서 관광서비스의 실적 향상을 꾀해야 한다. 교육의 주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들 스스로 소속 관광지의 인적 서비스담당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고, 그 지역문화의 전문가로서 주체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14) 이태희, 관광산업론 한국관광선진화의 과제, 일신사, 1996, 20쪽

울산지역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관광 안내표지판의 체계적 재정비를 꼽아야 할 것이다. 관광이 그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안내표지라는 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오늘날의 관광은 모르는 것에 대한 지적 욕구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관광은 이방의 방문객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인의 관광은 결코 일시적 감정이나 일회적 욕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재방문의 매력을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 또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행정적이고 제도적 차원에서 제고되어야 할 문제는 또한 공원, 시민휴식공간, 관광시설의 질적 향상을 피하면서도 자연환경과 녹지대를 훼손시키는 가든, 모텔의 구분별한 난립을 규제해야 한다.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친환경적 관광개발과 관광생산자의 친환경적 의식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울산의 5대 관광권역 어디를 가드라도 보존과 친환경적 개발이 아니라, 특정 이익집단이나 특정인의 특혜적 개발현상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개발정책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지방정부는 확고하게 인식해야 한다.

#### 4. 에코투어(Eco-Tourism)

환경과 인간생존의 상호 영향관계에 관한 인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대부분이 고도의 산업화 단계를 넘어서게 되고 물질적 풍요를 향유하는 때이다. 이 때는 이미 기본환경은 파괴되고 있는 시점이거나 거의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더 많은 비용을 들여 회생과 보존을 시도한다. 유럽에서는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에서는 “인간의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시키는 것은, ... 모든 정부의 의무이다.”라는 인간 환경선언을 채택했으며, 20년 후인 1992년 브라질의 리오드자네이로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연합회의”를 개최하여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드자네이로 선언”을 체결하여 인류와 자연과의 공존과 상호의존의 인식을 재확인하고, 환경오염은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자연환경의 파괴는 산업화와 경제적 효과만을 계산한 반환경적 개발로 인한 결과이다. 환경의 파괴는 결코 선재가 아니며 바로 인재라는 것을 확고하게 인식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개발은 현실적 경제논리에만 지배되어 왔다. 산업화에 따른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은 불가피하게 자연환경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자연환경의 파괴가 아니라 보존과 보호라는 기본 인식이 견여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21세기 지향적 관광개발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개발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것을 “에코 투어”(Eco-Tourism: 환경관광)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는 관광정책을 통해서 파괴되어가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인식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에코 투어 정책”은 관광의 경제적 효과와 자연환경의 보호라는 이중적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확고한 인식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을 우리는 21세기의 새로운 행동이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보편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면 그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확충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잠식과 쓰레기오염 그리고 수질오염 등 마이너스 효과가 강조될 때가 많다. 그러나 에코투어정책은 관광자원이로서의 가치를 확립함으로써 수입을 올리고, 그것을 환경보호와 육성에 피드백시킨다. 이러한 친자연적 관광조건은 관광의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의미는 환경교육의 장으로서의 효과를 기대하게 하는데 있다.

## 5. 관광상품과 관광서비스의 질적 개선

관광은 경제학적으로 상호작용의 관계를 형성한다. 관광객은 소비를 통해 만족을 극대화하고자 하고 관광생산자와 서비스업 종사자는 그들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당연히 쌍방의 욕구가 최대한 충족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관계는 주로 관광생산자와 현지 주민이나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비례한다. 무엇보다 토산품, 공산품, 먹거리 등의 관광지 상품의 질적 향상은 관광객의 구매욕을 증가시키지만 그 역(逆)은 재구매의 욕구를 저하시킨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적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다.

관광객은 관광안내, 상품매장, 식음료·숙박업의 서비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관광지의 서비스경험은 매체를 통한 관광홍보보다도 더 큰 홍보로 기능하기도 한다. 관광객의 재방문과 관광지의 추천에는 매우 복합적이기는 하지만 관광지의 서비스의 경험도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 6. 관광교통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상품화하면 그 다음 단계는 판매과정이다. 홍보과정을 거치면 관광객이 몰려들게 될 것이다. 이 관광객의 다양한 기호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상품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교통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대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울산은 거점으로 성주, 부산, 언양, 양산, 대구, 포항, 밀양, 청도 등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교통체계가 우선적으로 정비되어 지역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권역내의 순환체계를 확충·재정비하여 거점도시로부터 관광지에의 원활한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먼저 거점도시인 울산시의 도시공간과의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울산은 특히 태화강이 도시 중심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합리적으로 극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구도심권과 신도심권이 이분화되고 유기적 연계가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울산은 해안과 내륙 그리고 산악의 관광자원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간의 유기적 연계가 교통의 체계화로 잘 이루어진다면, 울산은 4계절적 관광지가 될 수 있으므로 울산은 관광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장기적으로 5대권역을 울산의 관광체계로 확립시키자면 무엇보다 그 지역간의 교통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거점도시로부터 언양권과 정자권의 교통연계는 가장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제약조건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어떤 관광개발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VI 결 론

본 논문은 관광산업은 21세기 지향적 새로운 산업군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광에 대한 전통적 관념으로부터 탈피하여 관광산업을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재인식하고자하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울산 지역의 관광산업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놓여 있다. 특히 관광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긍정적 효과를 외면하고 관광개발은 자연파괴 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의 소외, 대형 가든과 호텔의 확산으로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관광 개발이 정책적 지원에 입각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짐으로서 더욱 반환경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울산의 기대효과가 큰 잠재 관광자원을 사장시키고 경제화하지 못하며 많은 역사·문화적 가치재들이 발굴되지 못하고 있으며, 보존조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울산시의 관광산업 개발계획에 따르면 울산은 매우 기대효과가 큰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문세는 앞으로 이러한 관광자원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해 나가느냐에 따라 울산의 관광산업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5장에서 기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들을 제고함으로써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정착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실적합성에 기초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권용우·정태홍·김신희, 관광과 여가: 관광지리학적 접근, 서울: 한울, 1995
- 부산광역시, 부산관광종합개발계획, 1996. 12
- R.Ch. Mill(손해식외 편역), 현대관광론, 서울: 범한시적, 1993.
- R.W. McIntosh/Ch.R. Goeldner/J.R.B. Ritche(신현주외역), 관광학원본, 서울: 세 종연구원, 1996.
- 신창호, 「서울의 관광발전 시책방향」, 서울 관광진흥 방안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1995.
- 울산상공회의소, 울산공업30년사, 1992.
- \_\_\_\_\_, 울산상공현황, 1996.
- \_\_\_\_\_, 21세기 울산광역권의 비전과 발전전략, 1996.
- 울산시, 2016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 1996.
- \_\_\_\_\_, 울산동계연보, 각년도
- \_\_\_\_\_, 울산시 관광종합개발 계획, 1997.
- \_\_\_\_\_, 울산시 시정백서, 1997
- 이태희, 관광산업발전론 - 한국관광선진화의 과제, 일신사, 1996
- 정강환, 이벤트관광전략 - 축제와 지역활성화, 일신사, 1996.
- 최승담, 「서울시 관광상품 개발방안, 서울 관광진흥 방안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1995.
- 통계청, 총사업체 동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현학순, “제주도 관광산업의 세계화전략 추진방안”,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가 산다」,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민경제연구소, 1996. 12.